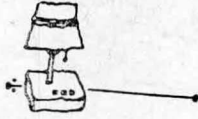


職業病과 職業의식



車 喆 煥

고려의대 · 환경의학연구소장

지난해 가을 研究所 직원들과 함께 들놀이 갔을 때의 일이다. 일년 내내 環境測定이며 水質檢査, 動物實驗 등으로 눈코뜰 새 없이 부산하게 뛰어다닌 研究員들의 노고를 위로할겸 해서 도시의 騒音과 煤煙에서 떠나 하루를 조용한 郊外에 나가 日課를 잊고 쉬다 오자고 夫婦동반하여 산정호수를 찾았다.

넓은 湖水주위에 펼쳐진 단풍과 들놀이에 알맞은 가을날씨는 오랫동안의 나들이를 더욱 흥겹게하여 젊은측들은 벌써 술잔을 기울이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한 때였다. 호수에 손을 씻으려 갔던 직원 한명이 호수물이 맑지 못하다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자 드디어는 이들의 職業意識이 발동한 모양이다. 모두들 호숫가에 내려가서는 저마다 한마디씩 떠들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들을 하는가 들어보니 물가에 떠오른 죽은 붕어 한마리를 놓고 湖水의 汚染에 대한 토론이 열을 띠고 있었다. 綠色프랑크톤의 번식이며, 曝氣作用의 부족에 溶存酸素量이 어떻다는 등, 湖水물의 淨化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自身들이 몇년동안적 공부한 知識을 한마디씩 하는 중에 한 연구원의 농담으로 토론은 結論없는 終結을 보았다. 말인즉, “선생님, 이 가련한 職業病患者들의 情緒的 苦悶을 무엇으로 補償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職業病이 아니라 職業意識의 發露이겠지만.

잠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마음속으로 안스러웠을 뿐이다. 평소에도 “公害”라는 “公”字만 들어도 귀가 번쩍하고 눈빛이 달라지는 이들인데, 요즈음은 각 産業場의 職業病發見과 作業環境管理 問題로 언제 어디서건 이에 관련된 일만 보면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職業病的 發作”이란 말로서, 때없이 튀어나오는 직업의식에 결연쩍

어진 研究員들의 自嘲的인 表現이다.

음악감상을 하다가도 연주소리가 커지기도 하면 音壓度가 몇 db이나 되겠느냐고 내기를 거는가 하면, 물안개를 피우며 떨어지는 瀑布를 보고 曝氣現狀이 잘 일어나니 溶存酸素가 많겠다고 하고, 아름다운 湖畔의 풍치를 바라보며 chlonophil (綠藻類)이 많겠다고 하는가 하면 하늘에 총총한 별을 바라보며 都市公害가 적은 모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병치고는 큰 병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모두들 자기 나름대로의 信念을 가지고 자원하여 뛰어 들어 젊은 情熱을 쏟아 몰두하고 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무엇이 이들의 이 苦悶과 노력을 보상할 것인가?

1971年 로마 클럽은 그들의 보고서 “The limits to pnowth”에서 人間 大多數의 관심의 초점은 나 자신과 지금 現在의 問題에 모여있고, 空間的으로 나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時間上으로 훨씬 미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극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는 이 극 소수의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문제가 제시되고 해결의 방향이 설정되며 풀려나갈 것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자신을 잊고 아무도 보아주는 이 없는 研究室에서 조용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젊은이 들이 있음을 알고있다— 자신들의 연구가 한개 이름없는 돌이 될지라도 언젠가 이들이 모여 거대한 피라미드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와 신념속에서 먼 훗날 이들의 業績은 거대한 피라미드처럼 우뚝음을 받을 것이고, 이들의 젊음은 그것으로 補償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설혹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더 심는 심정정으로 자신들의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